

2026. 7. 11.(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7월 10일(금)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동물원장

여용구

02-500-7002

동물기획과장

김종수

02-500-7701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grandpark.seoul.go.kr/>

서울대공원 일본원숭이사, 자연형 방사장으로 전면 재탄생...7월 11일 시민 관람 재개

- 단조로운 바위에서 벗어나 흙·모래 바닥, 사계절 식재, 폰드로 야생에 가까운 환경 구현
- 5m, 7m 수직 구조물, 로프·놀이그물·암벽 등 행동풍부화로 동물 복지 및 공간 선택권 확대
- 유리 관람창 도입·1층 난간대 제거로 어린이 눈높이 배려...유아 맞춤형 생태교육 확대 운영

☐ 서울대공원은 일본원숭이사가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생태친화형 자연형 방사장’으로 전면 재탄생함에 따라 오는 7월 11일부터 시민 관람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재정비는 기존의 단단한 바닥과 바위산 위주의 단조로운 구조에서 벗어나 흙·모래 기반 바닥과 다양한 식재, 냉·온수 폰드를 도입해 서식환경을 전면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 방사장 바닥은 흙과 모래 기반으로 전면 교체되어 동물들이 직접 땅을 밟고 뛰며 바람과 햇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교목, 관목, 초본이 어우러진 식재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담아냈으며, 새롭게 조성된 폰드(수공간)는 물가에서의 사회적 놀이와 휴식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원숭이들이 땅을 파고 냄새를 맡으며 먹이를 찾는 채집 행동, 햇볕쬘기, 그루밍 등 자연스러운 복지 행동이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다양한 높이의 구조물과 행동풍부화 장치를 전역에 촘촘히 배치해 동물의 공간 선택권을 넓혔다.

○ 5m, 7m 높이의 나무 형태 대형 수직 구조물은 매달리기·도약·균형잡기 등 입체적 이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망 포인트를 제공해 호수를 조망할 수 있게 했다.

○ 다양한 길이의 로프, 흔들리는 놀이그물, 안전 기준을 충족한 암벽요소 등은 개체 간 경쟁을 분산하고 지루함을 줄여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한다.

○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와 바닥 난방을 도입해 체온 유지와 회복을 돕고, 두 개의 폰드 중 하나에는 겨울철 온수 공급이 가능해 혹한기에도 물가 활동이 가능하다.

□ 시민들을 위한 관람환경 역시 ‘보다 가깝고, 안전하며, 배려 깊게’ 바뀌었다. 기존 철망 관람창을 넓은 유리 관람창으로 대체하고 시야를 가리는 1층 난간대를 없애, 키가 작은 어린이들도 눈높이에서 동물의 생태를 생생하고 쉽게 관찰할 수 있다.

□ 한편, 일본원숭이사 관람 재개에 맞춰 그동안 공사로 인해 축소 운영되었던 유아 단체 대상 생태교육 프로그램인 ‘동물사랑! 유치원’도 확대 운영한다.

○ ‘동물사랑! 유치원’은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3~5세) 단체를 대상으로, 놀이·관찰·체험을 결합한 맞춤형 생태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문 교육강사와 안전요원이 동행해 이동부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지원한다.

○ 그동안은 공사로 인한 안전 우려로 어린이동물원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 관람 재개장에 따라 일본원숭이사와 꼬마동물사까지 교육 범위를 확대해 동물과의 안전한 만남과 공감 학습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자연형 방사장은 동물에게 선택권을 넓혀주고, 시민에게는 더 깊이 있는 관찰과 배움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변화”라며, “새롭게 문을 여는 일본원숭이사를 통해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의 표준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01_기존의 콘크리트 바닥 대신 흙·모래 기반 바닥 조성 및 나무형태 수직구조물과 로프, 그물, 암벽타기 등을 통해 입체적 이동 및 놀이 활성화



사진02_수공간과 식재를 통해 서식지 환경 재현



사진03_깨끗한 유리관람창 조성을 통해 관람환경 개선



사진04_원숭이사 입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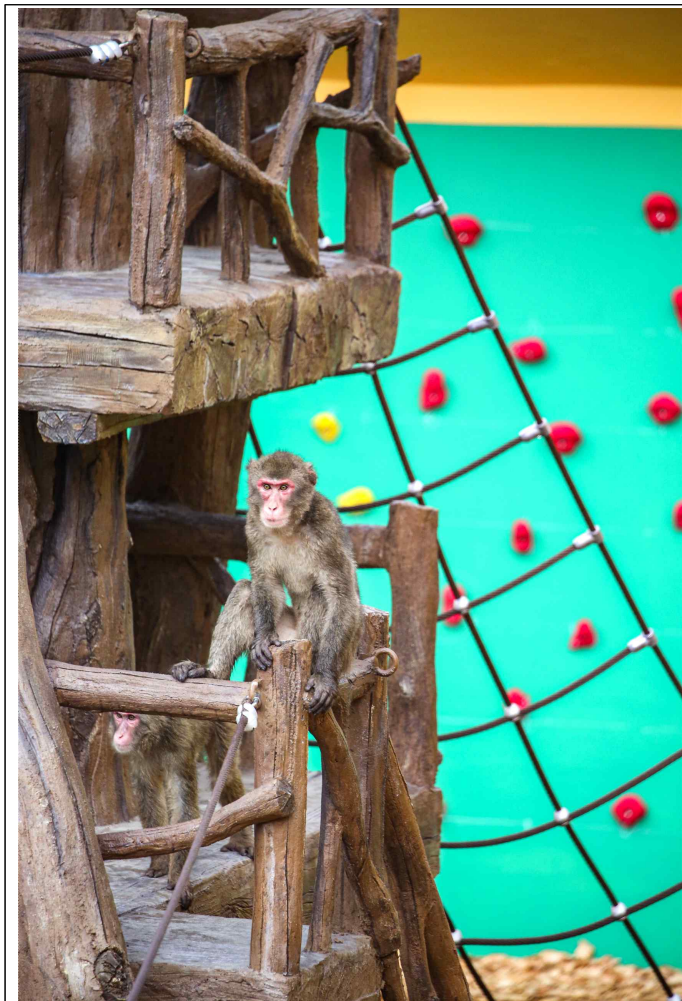


사진05_원숭이사 입사 모습



사진06_원숭이사 입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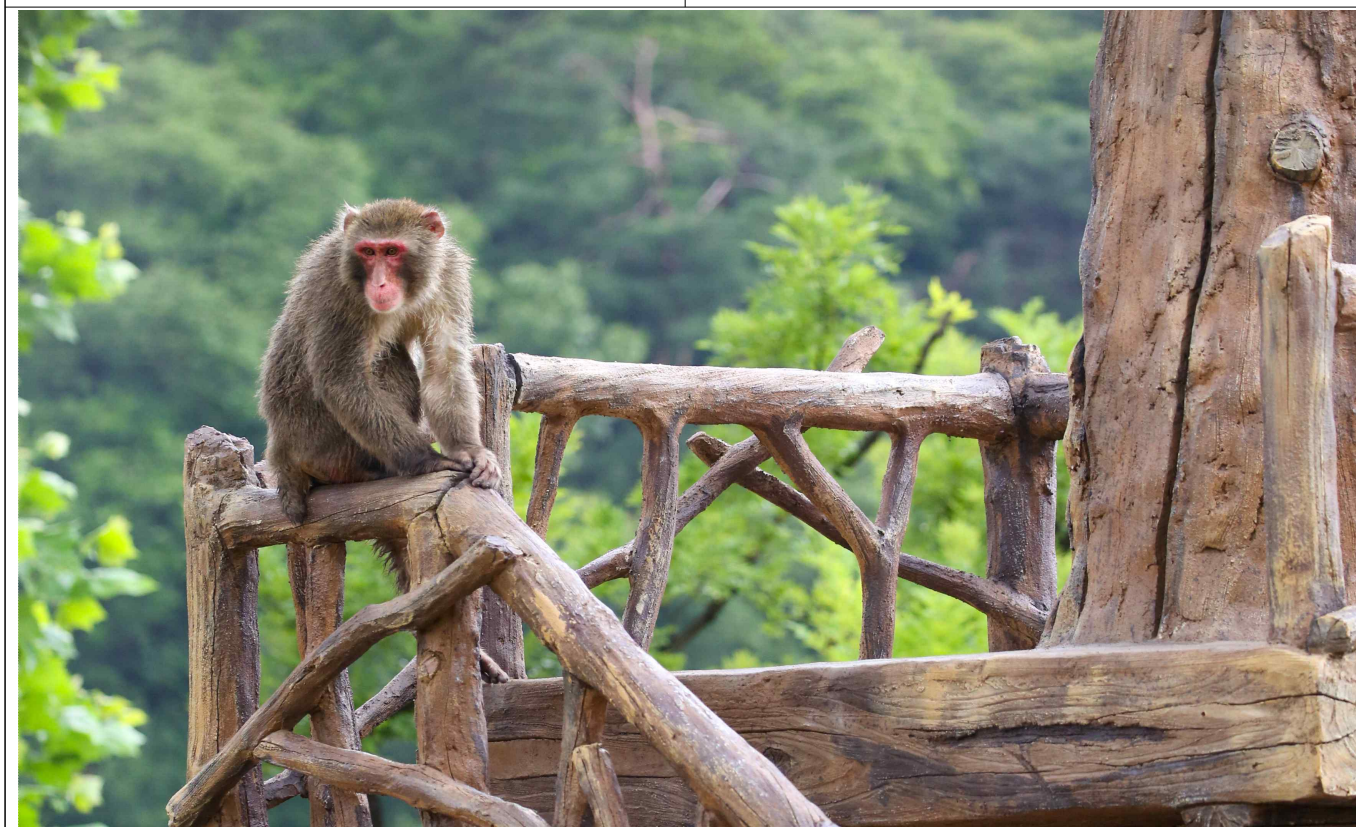


사진07_원숭이사 입사 모습